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1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5)	봉헌 (220)	성체 (165)	파견 (54)
---------	---------	----------	----------	---------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루카 6,27-38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17	유 요한	이 바오로	박 다니엘
2/2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3/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3/10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5	\$72	\$2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3	유 요한/ 유 마리아
2/23	손 아놀드/ 손 쟈마	3/30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2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9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4/13	김 요아킴/ 고 안나
3/16	이 요한/ 이 마틸다	4/20	김유스티노/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성모님과 수녀님

-최재원 요셉 |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잠원동성당 마당에 계시는데요. 동그스름한 형상의 얼굴이 상당히 인상도 좋고 기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성모상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아내를 처음 그곳에 데려가 인사시켰고 큰 기쁨과 큰 슬픔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가 초를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기쁨의 눈물도 참회의 눈물도 다 그분 앞에서 흘렸고 그래서 그분은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함께 해주셨던 성모님이십니다.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수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처음 만난 건 94년 12월, 혜화동성당 앞 로터리에서 입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엄청난 짐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모습에 물고 가던 차를 세우고 여쭙보았습니다. “수녀님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모셔다드릴까요?”

수녀님께선 고맙다며, 근처 4.19 기념관까지만 태워달라 하셨습니다. 차가 막혀 40분 정도 걸렸으니 근처는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수녀님과 이런저런 얘길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녀님께선 차에서 내리시기 전 저의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당시 취업 문제로 힘들어 하던 여동생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하나는 늘 떨어지던 텔런트 시험에 이번엔 붙을 거라고 장담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방송국 공채 시험에 7전 8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벌써 11번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수녀님 그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백도 있어야...”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3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3월 11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3월 첫 주부터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3월 30일

새 양말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기한은 3월 17일 까지 입니다.

**2019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수녀님께선 시험 날짜를 물어보시더니 “아니에요. 이번에는 됐어요. 그날이 성 요셉 대축일이라 안 될 수가 없어요. 백이라면 하느님이 있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평범해 보이셨던 거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위엄과 카리스마가 상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수녀원에 가면 모든 수녀님에게 요셉씨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게요. 그럼 될거예요.” 하면서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후 수녀님 말대로 12번 만에 공채시험에 붙었고 여동생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버틴 후 정식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선 저랑 여동생이 당시 간절히 바라던 2가지의 소원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수녀님을 통해 이뤄주셨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오랜만에 보이나 수녀님이 계시는 살레시오 수녀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케이크의 촛불을 붙여 즐거운 성탄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수녀님이 보이나 잘 살펴보세요. 주님께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든 들어주시기 위해 늘 살피고 또 살피시는 분이시니까요...

복음묵상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20